

2018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심사총평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진단하며 혐오와 차별이 넘쳐나는 것에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특정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여성, 노인, 아동 및 청소년,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특정지역, 특정국가, 종교 등 혐오와 차별은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표현과 행위가 난무하지만, 더욱더 확산 일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인은 한국사회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지난 세월 동안, 한국인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단기간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으며, 평화로운 정권교체 그리고 촛불항쟁으로 불의를 자체적으로 견어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견해 차이와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며 자족하는 모양새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혐오와 차별의 수준은 한국사회 구성원의 내부적 판단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양성평등지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117위로 최하 위권에 있으며 그나마 매년 등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양성 포용정도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7개 조사대상국 중 26위에 불과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 사람들은 배경, 문화, 견해가 다른 이들에 얼마나 관용적인가에 대한 응답에 단 20%만인 매우 관용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UN경제·사회·문화적권리 위원회는 2017년 대한민국 정부의 제 4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부족에 매우 우려하며 문화다양성 확산에 힘쓰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경기문화재단의 소수자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과 공존의 모색은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원신청서들을 살펴보면, 소수자와의 만남과 교류 그리고 이를 통한 다수자의 의식변화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전문영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이를 성취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기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진행하며 아쉬운 점을 적어보았습니다. 사업공고에서도 밝혔듯이 본 사업의 방점은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이며, 통합적 운영입니다. 하지만, 지원신청서에서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오해했거나 사업기획에 개념이 녹아들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문화다양성’이란 개념자체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논쟁적인 측면이 있으며, 한국사회에 소개된 지 그

리 오래 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일정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 중 하나는, 소수자나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단순 제공하는 문화복지적 차원의 사업기획이 다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사업의 취지를 이끌어내가기 위해서는, 추가 공모를 통해 좀 더 적극적 문제의식과 동기, 새로운 활동을 찾을 수 있는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선정된 다수 단체들에 대해서도 매개자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과 운영의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지개다리’ 사업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점은 다양한 정체성의 그룹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아니라 소통과 교류를 뜻하는 ‘다리’에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단순히 일방에게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수자 일방에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를 요구하거나, 이미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다양해지라고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변화하고 이해해야 하는 당사자는 모두이지만, 그 방점은 다수자에게 있으며, 그 변화는 강요가 아니어야 합니다.

문화다양성은 소수자의 변화를 강요하거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정체성이 용인되고 존중되며 이를 통해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통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수자의 이해와 변화가 더욱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무관심, 몰이해, 편견으로 갈라져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 하며, 자연스러운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업 기획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만남과 접점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일상에서 관계의 변화가 만들어져 나갔으면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꿈꾸는 다양한 정체성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 일동